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국제 레지던시 진행

입주작가 5명 선정...6개월 활동
빛·상호작용·자아 등 깊이 탐구
9월 '오픈스튜디오' 작업물 공개



(왼쪽부터) 이수빈·유충신·정덕용·서은선·신해인 작가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레지던시로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미디어아트 국제 레지던시 입주작가 5명을 선정, 이달 초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층 레지던시 스튜디오 공간입주를 마치고 약 6개월간 진행될 프로그램 준비에 나섰다. 올해 입주작가는 이수빈, 유충신(LIU ZHONGCHEN), 정덕용, 서은선, 신해인 5명이다.

입주작가들의 첫 번째 행보는 '오픈스튜디오'다. 오는 9월 작가들의 작업공간에서 작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자기소개 및 작업물을 설명하고 Q&A 시간을 마련해 작가 개개인과 그의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갈 예정이다. 온라인용 동영상으로도 제작될 예

정이다.

독일 드레스덴 미대 디플롬 학사를 마치고 독일에서 작품 활동을 한 이수빈 작가는 다양한 재료와 테크닉을 사용한 빛의 변화, 특정 공간 안에서의 빛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와 실험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관객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주로 전시해왔다.

이 작가는 '빛, 사람, 상호작용, 관계와 현상'

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미디어 장치들을 활용한 경험과 실험을 통해 현 작업과 연결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국인 작가 유충신(LIU ZHONGCHEN)은 중국 루쉰미술학원(LuXun Academy of Fine Arts)에서 학사를, 그리고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이어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유충신 작가는 예술과 삶의 한계, 계층, 문화융합, 그리고 다

문화를 탐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

해 "각종 오브제와 생활재료를 활용해 소비사회, 일상적 교제, 나아가 신앙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능성을 표현하고 재료와 의미와의 관계를 깊이 탐구한다"면서 "오브제의 배열과 설치를 활용해 현대사회의 시대적 특징을 설명하고 은유한다"고 말한다. 올해는 이와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발굴하고 시리즈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정덕용 작가는 '솔직함을 녹여 내기 위해서는

작업방식이 한가지로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를 전제로 작품을 구성한다. 정 작가는 "매체가 점차 발전하면서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지고 더욱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Guilty pleasure' 현상은 현재 우리 모습에 대한 연구로 작품에 나타날 것"이라며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넘어선 비인간과 인간의 연결성과 경계의 구조까지 탐구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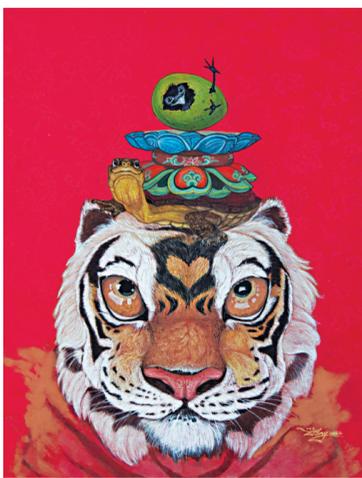
전남대학교 디자인&아트테크놀로지학과 박사과정중인 서은선 작가는 심리학자 줄리언 제인스의 영향으로 '의식'에 대해 연구하고 표현해왔다. 이를 토대로 내면의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탐구한다. 현재 가상현실을 이용한 예술치유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융합 예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멀티미디어영상과 석사를 마치고 영화와 시를 결합한 '필름 포엠' 작업을 하고 있는 신해인 작가는 '한 인간으로서 이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연구하고 표현해왔다. 신 작가는 10년간 떠나있었던 고향인 광주로 돌아와 광주의 사람들을 만나고 광주를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로 창작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광주를 담아내고자 한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제는 광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디어아트를 선보여야 할 때다"면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은 레지던시 사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민화로 풀어낸 '위대한 탄생'

송영학 호랑이 작품 30점 선편
내달 7일까지 송정작은미술관



송영학 '위대한 탄생4'

조선시대 민화의 대표적인 소재 호랑이를 주제로 작업하는 송영학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19일부터 소촌아트팩토리 송정작은미술관에서 열리는 51번째 광산아트플러스 전시 '위대한 탄생'이다.

이번 전시는 전통민화를 소재로 '탄생'의 의미를 재해석한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송 작가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고관대각들이나 양반층이 호랑이 세화를 연하장처럼 주고받았다"며 "지배계층의 허세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까치호랑이 등의 작품을 많은 분이 감상하고,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작가는 조선대 미대 회화과와 동대학원 미술학과 석사과정을 거쳤으며 무형문화재 21호 탕화장 문화재 전수 장학생 수료자다. 한국화 동질성회복회, 우리민족 문화예술연구소 회원이다. 광주교대와 조선대 미대에 출강중이다.

이번 전시는 8월7일까지 열리며(월요일 휴관)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3687)로 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금호 주니어 콘서트 릴레이 무대

오늘 소프라노 김명선 공연
김유정·유지수 7월 독창회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금호주니어콘서트 시리즈 연주회가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개최됐다.

만 26세 이하의 음악전공자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 정식 데뷔 무대를 제공하는 금호주니어콘서트는 지난 2010년 지역 음악 영재 발굴

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까지 총 157명의 예비 음악가가 무대에 올랐으며, 올해 10명의 연주자들이 독주회를 앞두고 있다.

19일 첫 무대의 주인공은 소프라노 김명선이다. 이어 20일 메조소프라노 김유정(전남대 대학원), 26일 소프라노 유지수(전남대)가 7월의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8월에는 10일 피아니스트 최주원(전남대), 11일 호른리스트 조혜선(전남대), 16일 플루

티스트 변예지(전남대), 17일 피아니스트 김윤경(광주예고), 18일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줄리어드음악원), 23일 바이올리니스트 남하승(서울대), 24일 바이올리니스트 류주은(예원학교)이 그 뒤를 잇는다.

금호주니어콘서트 담당자는 "오디션을 통해 정식 데뷔 무대를 제공하는 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클래식 영재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티켓은 1만원이며 공연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공연문의는 전화(062-360-8432)로 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청와대 밤 풍경 온라인서 영상 공개

청와대의 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공개됐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과 한국문화재단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 행사의 주요 내용을 담은 영상을 18일 온라인에 게재했다.

청와대의 야간 관람은 지난 5월 개방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이뤄지고 있다.

추진단은 야간 관람 기간 내 방문이 어렵거나 응모에서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주요 동선과 프로그램을 담은 영상을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www.청와대개방.kr)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1분 50초 분량의 영상에는 하늘에서 바라본 청와대 일대의 야경, 관저 정원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 조명이 켜진 상춘재와 녹지원 반송(盤松) 등의 모습이 담겼다.

정문으로 입장한 뒤 대정원, 분관, 수궁터, 관저 앞, 상춘재, 녹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관람 동선을 그대로 옮겨 마치 '랜선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연철뉴스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의 名家

쾌적/편한/예쁜/기능성 속옷은 "정말" 있습니다.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래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뜨, 루디아

블랙온사 바디 슈트의
온사 레이스 품평회 1등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1.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5개국 특허 체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전문상담 사업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적문의): 070-4909-46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본점** | 전문상담 사업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적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